

열정은 시가 되고 모임은 산문이 되고

2017 文化로 물들다

9 순천 문학동인 '시와산문'

1992년 결성 동인지 30호 발간
순천 시인·수필가 등 28명 활동
해마다 문학기행·토론회 등 진행
시화전 열고 다음카페 개설도

“행복해서 웃는 웃음은 주변을 밝혀주는 빛이다. 보여 주기 위한 기교보다 스스로 도전받으며 꿈을 가꾸어 보자. 이끌리고 좋아하는 일이 팔까 내면의 소리 들어보자. 저마다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줄, 예지를 찾아 가꾸는 여정에 순응하며 나아가자. 해를 거듭할수록 자존감 탄탄한 속사랑으로 채워질 것이다.”

문학동인 '시와산문' 최영숙 회장은 회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체득한 지혜와 경험을 문학으로 승화하기를 꿈꾼다. 무엇보다 읽고 쓰는 일은 관조와 성찰을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순천에서 활동하는 '시와산문' 동인은 25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문학의 위상이 날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25년째 꾸준한 문학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다.

동인은 문인들이 문학적 지향을 모토로 창작 활동과 지평을 넓혀가는 동호인 모임이다. 한 해 한 해 작품을 갈무리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 아니다. 문학을 향한 열정이 없다면 동인 활동은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없다.

지난 92년 4월 결성된 '시와산문'은 당시 순천에서 글을 쓰고 공부하는 모임이었던 '문예대학'이 계기가 됐다. 이곳에 참여한 지역 문인들이 의기투합해 동인을 결성하게 됐고, 오늘에까지 명맥이 이어졌다.

현재 회원은 모두 28명이며 대부분 순천을 기반으로 하는 시인, 수필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은 일반 직장인, 교사, 공무원, 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4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초대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정운기 시인과 장영숙 시인이 맡았다. 그리고 허근·안철수 시인 등 10여 명 회원이 참여해 문학을 매개로 한 열린 모임을 지향했다. 창립 첫 해 허소과 시인과 신세훈 시인의 특강이 개최됐고 영랑생가와 다산초당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시와산문' 창간호는 이듬해 1993년부터 발간됐다. 그 해에는 순천문인협회 시화전 참가를 비롯 시낭송회도 열렸다. 지금까지 모두 30호가 발간된 '시와산문'은 어엿한 성인으로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동인 활동은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돼왔다. '동인지 콘테스트' 참가, 소설가 김승옥과의 만남, 허형만 시인 특강, 해외문화탐방, 영호남 한마음 문학여행, 문학인교류대회, 회원시화전, 문학토론회 등 매년 특색있는 문학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회원들의 창작 역량을 높이고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합평회를 열었다.

총무를 맡고 있는 이광숙 수필가는 “지역에서 동인지



지난 1992년 결성해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순천 문학동인 '시와산문'은 매년 특색있는 문학 행사를 진행하며 창작의 열정을 지펴가고 있다. 2015년 조경래 태백산맥 문학관 탐방 당시의 모습(위)과 동인회원 시화전. <시와산문 제9호>

를 30회 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라며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자부심과 열정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동인지를 꾸리기 위해 회원들 모두가 작품을 출품하는데 ‘성실한 부담감’이 오늘의 ‘시와산문’의 토대가 됐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작년에는 동인을 꾸리자 3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였다. 여느 해보다 풍성한 행사가 열렸다. 동인지 30호를 전남문화예술재단 지원을 받아 출간했는데 신입회원을 포함한 전 회원의 소중한 작품이 담겼다.

상반기에는 백제문화권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정림사지 부여박물관, 신동업생가 및 문학관, 백마강 고란사와 낙화암 부소산성을 다녀왔다. 특별히 '문예대학' 18기 회원들도 동행해 우의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하반기에는 문학적 소통을 강화하고 친목 도모를 위해 3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했다. '꽃들에게 희망을', '채식주의자', '아린왕자'를 읽고 토론회를 펼쳤다. 발제자가 제시한 주제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텍스트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와 문제의식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했다.

또한 시화전도 개최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들

에게 신선한 자극을 선사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전시회는 동인들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됐다

는 평이다.

올해도 다양한 행사들이 계획돼 있다. 매월 실시하는 문학토론회도 내실있게 진행하고 작년에 이어 시화전도 계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순천문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문예대학에 참여해 문학 공부도 하고 일부 회원은 강사로도 참여할 예정이다. 31집 '시와산문' 발간에도 힘을 쏟아 문학기행, 신작 출판 소식, 시화전 관련 내용, 토론회 등 읽을거리 위주로 꾸밀 예정이다.

한편 '시와산문'은 다음카페(cafe.daum.net/si-san)도 개설해 회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창작방에 글을 올리면 평가를 받기도 하며, 좋은 시와 글은 함께 공유를 한다.

'시와산문'은 비록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인이지만 열정만큼은 여느 중앙의 동호인 못지않다. 주변에서 중심을 지향하는 힘, 나아가 주변에서 주변을 추켜세우는 남다른 자부심이 근원이 아닐까 싶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군산 둔용동 성당'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 문화재 등록 예고

수많은 사제들을 배출했던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이하 브레디관)과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이 문화재가 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5일 '브레디관' 등 5건을 문화재 등록 예고하고 '서울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를 3건을 등록했다.

'브레디관'은 1961년 대전신학교 기숙사로 건립된 건물로서, 건물 형태는 신학교의 초성인 'S'자 모양으로 크게 세 영역으로 분리돼 있다. 세 영역이 만나는 중앙 부분에 공동화장실, 세면실, 휴게실 등이 있어 학교 공동숙소의 생활양식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특히 옥상은 여름철에 일정한 양의 물을 채워 실내온도를 낮추는 수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점은 다른 건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신학교 건물로서의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광군 읍내에 자리한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1880년대 전후로

현 소유주의 선대(先代)가 세 아들을 위해 지은 집이다. 장남덕 근처에 둘째 아들 집과 셋째 아들 집을 건립, 세가옥이 있었으나 현재 둘째 아들 집은 소실된 상태다.

장남덕 사랑채는 근대 '의원'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며, 안채 공간은 한때 여인숙으로 개조해 사용했던 것으로 공간적 변용과 활용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밖에 '군산 둔용동 성당',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홀', '제주 대정여자고등학교 실습실(구 98육군병원)'이 함께 등록 예고됐다.

또한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개인 소유물들로 '서울 해병대사령부 초대교회'를 비롯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본 '찬송가'(UNION HYMNAL) 1권,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장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모자이크 제단화'(1점)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브레디관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광주문화재단, 통신원 '모담지기' 모집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현장 소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해줄 제3회 통신원 '모담지기'(가칭)를 모집한다. '모담지기는' '벗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모여서 답소를 나눈다'라는 의미다.

통신원은 매달 1회 이상 광주문화재단 진행 사업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 관련 인물 등을 취재한 뒤 글·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해 온라인 뉴스레터에 게재한다. 우수 기사는 센터 통합 결과자료집에도 실릴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광주 거주자로, 문화예

술교육 현장에 대한 글쓰기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 7명이다. 신청서, 자유 주제의 본인 글, 촬영사진 등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중 통신원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며, 3월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12월까지 활동한다.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광주문화재단 (www.gicf.or.kr)·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www.gjarte.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gjarte@hanmail.net)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70-57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CHANNEL A 매주 금요일 밤11시

이수근, 강성연, 김희철, 문희준, 최성국, 김태우, 한석준